

사진 한 장에서 블로그 한 편까지

— AI와 함께 만드는 나만의 제주 콘텐츠 제작법

1. 활용 분야

생활 분야 - 취미·여가(글쓰기, 여행·지역 콘텐츠 제작)

2. 활용 사례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제주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그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이나 나들이를 다녀온 뒤 찍은 사진을 정리하고, 기억을 되살려 글을 작성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사진은 많이 찍었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 어떤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선택해야 할지
- 글의 순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 방문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 내가 느낀 감정과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함께 담을지
- 제목과 소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특히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읽기 좋은 콘텐츠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단순히 '글을 대신 써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촬영한 사진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과정을 함께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 기존 방식과 달라진 점

기존에는

현장 방문 → 사진 촬영 → 집에서 사진 정리 → 글 작성 → 제목 고민 → 정보 검색 → 수정

순서로 작업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이후에는 제작 과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현장 경험과 사진 촬영

↓

AI에게 사진과 나의 실제 경험 전달

↓

사진 속 장소·상황·특징 분석

↓

글의 전체 구성 및 부족한 정보 확인

↓

제목·소제목·본문 구성

↓

사실관계 및 표현 검토

↓

내 경험과 감정을 다시 반영

↓

최종 콘텐츠 완성

즉, AI에게 콘텐츠를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콘텐츠의 중심이 되고 AI가 기획·정리·검토를 돕는 방식**으로 활용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4. 실제 AI 활용 방법

STEP 1. 내가 직접 경험하고 촬영한다

가장 먼저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제주 숲길이나 오름, 관광지, 음식점 등을 직접 찾아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 자료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AI에게 방문하지 않은 장소의 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STEP 2. 사진과 경험을 AI에게 전달한다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내가 현장에서 느낀 점, 이동 과정, 기억에 남는 장면 등을 AI에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주 ○○○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바탕으로 장소의 특징을 정리하고, 제가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블로그 글의 구성을 잡아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알려주세요."

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만들어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검토**합니다.

STEP 3. 사진을 '콘텐츠의 순서'로 활용한다

예전에는 사진을 단순히 많이 넣는 데 집중했다면, AI를 활용하면서 사진 각각의 역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 사진 → 장소의 첫인상 → 이동 과정 → 주요 볼거리 → 세부 풍경 → 개인적인 느낌 → 방문 정보

와 같이 사진을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AI에게 사진의 순서와 글의 흐름을 함께 검토하게 하면서, 단순한 사진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콘텐츠**로 발전시켰습니다.

STEP 4. AI를 '검토자'로 활용한다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가?
-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은 없는가?
- 독자가 실제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는가?
- 같은 표현이 반복되지 않는가?
- 제목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가?

AI가 제시한 내용 중 사실관계가 중요한 정보는 별도로 확인하고,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단정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AI의 편리함과 사람의 판단을 결합하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5. 가장 큰 변화

AI를 활용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단순히 글을 빨리 쓰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찍는 방식'과 '기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사진을 찍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이 사진을 통해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을 작성할 때도 단순한 방문 후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 + 사진이 전달하는 현장감

을 함께 담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AI는 나의 경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더 잘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6. 나만의 차별화된 활용 방식

생성형 AI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방법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AI가 경험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경험하는 것은 사람인 저입니다.

AI는 그 경험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진을 핵심 입력자료로 활용합니다.

단순히 글을 입력하고 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촬영한 사진과 현장 경험을 함께 활용**합니다.

셋째, AI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AI가 제시한 정보와 표현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은 수정하거나 삭제합니다.

넷째, 최종 결과물에는 나의 경험을 다시 담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일반적인 문장보다 내가 현장에서 느낀 감정, 상황, 작은 에피소드 등을 추가하여 **나만의 콘텐츠**로 완성합니다.

7. AI 활용 전·후 비교

구분	AI 활용 전	AI 활용 후
사진 활용	사진을 순서대로 배치	이야기 흐름에 맞게 구성
글 작성	경험을 기억하며 직접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구조화
제목	혼자 여러 제목을 고민	다양한 후보를 비교·선정
정보 정리	검색하며 개별적으로 확인	AI로 필요한 정보와 확인사항 정리
문장 수정	직접 반복 수정	AI를 활용해 표현·구성 검토
사실 확인	작성 후 확인	작성 과정에서 검증 필요사항 분리

구분	AI 활용 전	AI 활용 후
콘텐츠 품질	개인적인 방문 기록 중심	경험 + 정보 + 사진을 결합

8. 실제 적용을 통해 얻은 성과

이러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면서 블로그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하나의 콘텐츠 제작 과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하면서 혼자 작업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제목이나 글의 구성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던 부분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AI가 글을 대신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을 어떻게 더 잘 기록하고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9. 다른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활용 방법

이 방법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고가의 장비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한 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됩니다.

나만의 5단계 방법

① 직접 경험하기

장소를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② 경험 기록하기

사진을 찍은 이유와 현장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기록한다.

③ AI에게 정리 요청하기

사진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구조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다.

④ 사람이 검증하기

AI가 제시한 정보 중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한다.

⑤ 나의 이야기로 완성하기

AI의 결과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표현을 더해 최종 콘텐츠를 만든다.

이러한 방법은 여행이나 맛집뿐만 아니라 등산, 축제, 스포츠 경기, 지역 행사, 가족 나들이, 일상 기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윤리적·책임 있는 AI 활용

AI를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편리함보다 정확성과 책임'입니다.

AI가 생성한 정보를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경험이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로 검증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진이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촬영한 사진을 중심으로 활용했습니다.

개인정보나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진은 공개에 주의하고, AI가 만들어낸 정보라도 최종적으로 공개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더 책임감 있게 활용해야 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11. 기대효과와 확산 가능성

이러한 활용 방법은 개인 블로그를 넘어 다양한 일상 기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지만 정작 사진을 정리하거나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진 한 장 + 나의 경험 + AI

만으로 자신의 하루와 여행, 지역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이 직접 경험한 맛집, 관광지, 행사, 산책길 등의 정보를 자신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지역의 일상과 이야기를 디지털 콘텐츠로 축적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AI를 사용하기 전에는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것이 단순한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면서 사진 한 장에도 이야기가 있고, 내가 경험한 하루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I가 대신 여행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AI가 대신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하는 사람은 나이고, 기록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AI는 그 경험을 더 잘 정리하고,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AI 활용법의 핵심은

“AI에게 나의 경험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AI와 함께 더 가치 있는 기록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작은 기록이 AI를 만나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그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제가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AI와 함께 만드는 나만의 콘텐츠 제작법'**입니다.